

“책임 회피용 섬진강 홍수 원인 보고서 수용못한다”

중간보고서보다 못한 최종보고서...구례 등 섬진강 하류 주민 반발 주요원인 빠지고 막연한 복합요인으로 표기...정부기관 관여 의혹

26일로 예정된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구례 주민 등 섬진강 하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해 원인 제공과 관련 최종보고서가 정부 책임을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중간보고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수해 주민단체는 “최종보고서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책임 회피용 맹탕보고서”라며 “조사 결과 수용 불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도 “물난리를 부른 장본인으로 지목받

는 환경부가 용역을 발주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셀프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25일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는 자료를 내고 “(26일 발표 예정인) 섬진강댐 수해원인 최종 용역조사결과는 책임회피용 보고서로 수용 못한다”고 밝혔다.

주민대책본부는 “주민들이 사전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입수, 검토한 결과 중간보고서와 달리 주요 원인이 빠진 채 막연한 복합요인으로 표기됐다”며 “또한 직접 원인 제공이 분명함에도 책임 주체를 지

간접 원인 제공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중간조사 보고서보다 못한 ‘맹탕보고서’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실제 주민대책본부가 제공한 45페이지 분량의 ‘담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의 종합 결론에는 “국가(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는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발표된 중간조사 보고서가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임”이라고 기술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민대책본부는 정부 기관이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최종보고서가 달라진 배경에 수자원공사 등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사가 최종보고서 작성 전 유관기관에 의견 제시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등이 의견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은 없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수해 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 발주와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사 선정부터 이 같은 문제가 예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섬진강담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에 지자체 추천 전문가인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애초 주민들로부터 수해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은 환경부가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부터 한계가 있었다”

며 “용역수행 기관인 ‘한국수자원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이산(컨소시엄)’은 모두 환경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들이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7-8일 섬진강 유역에는 600mm에 육박하는 큰비가 내려 강둑이 무너지는 등 홍수가 났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섬진강 유역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 주민들과 구례·곡성·남원 등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지방의회는 섬진강 홍수 원인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규정하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섬진강 홍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실종 전 김 대장의 모습 지난 18일 조난당한 김홍빈 대장을 가장 먼저 구조하려 나섰던 러시아 구조대의 비탈리 라조가 자신의 원정대 SNS 계정에 올린 김 대장(오른쪽)의 실종전 모습. 조난 현장에 있던 김홍빈 대장은 부축없이 두발로 서 있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deathzonefreeride 인스타그램 캡처>

김홍빈 대장 수색 실패...조난 위치 파악 못해

광주시사고수습대책위 공식발표...눈보라로 지형 변해 수색 난항 구조 나섰던 러시아 원정대원 “현장에 15명 있었지만 구조 외면”

파키스탄 수색대가 브로드피크(Broadpeak·8047m) 등정 성공 후 하산길에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위치를 찾는데 실패했다.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 광주시사고수습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김 대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헬기 수색했으나 위치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색 헬기에는 김 대장 구조에 나섰던 러시아 원정대의 비탈리 라조(Vitaly Iazov)가 탑승, 현지 시간 오전 9시 49분(한국시간 오후 1시 49분)부터 11시 5분까지 3시간여 동안 수색했다.

하지만, 중국령 브로드피크 해발고도 7400m 부근을 6회나 선회했지만 실종 이후 불어닥친 눈보라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책위는 “베이스캠프 관계자가 이날 헬기에서 촬영한 사고 지점 일대 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판독이 완료된 후에 향후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색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장이 조난당했음에도 일부 산악인들이 구조를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탈리 라조는 자신의 원정대 SNS 계정에 “김 대장이 조난 당했을 때 현장에 산악인 15명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심지어 베이스캠프로 구조신호도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대장은 두 발로 걷고 서 있었으며 그를 부축하려 하자 스스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등 정신도 멀쩡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브로드피크 원정에 참여했던 류재강, 정득채, 정우연 대원은 이르면 다음 달 2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현재 대원들의 몸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득채 대원은 동상 피해를 입어 현지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58분(한국시간 8시 58분) 브로드피크 정상에 밟으며 정재인으로서는 세계최초 히말라야 8000m 14차 완등을 이뤄냈다.

하지만 하산 과정에서의 추락사고로 아직까지 정확한 추락 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지원금 8월 말~9월 중순 지급

코로나 확진자수 따라 결정...1인당 25만원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에 완료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를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지급 시기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말은 우리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는 시점이다. 방역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확진자 수 추이 등 방역 상황이 관건이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

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지원금에 의해 지원과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